

2026 **스페인**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8
3. 주요 이슈 Pick	11
가. '26년 예산안 통과 난항에 따른 정책 추진 애로	11
나. 전력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전망	12
다. 중국산 제품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 심화 우려	13
라. 미국 관세정책 변화,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가. 시장 특징	16
나. 무역	18
다. 산업	22
라. 투자	23
2. 유망 산업	27
가. 재생에너지	27
나. 자동차	29
3. 협력 기회	32
가. 프로젝트	32
나. 공동 R&D	34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36
2. 진출전략	3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46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48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0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7 |
| 3. 주요 이슈 Pick | 1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요약

- '26년 스페인 경제성장을 2.0% 전망, 유로존 평균(1.1%)을 상회하며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유럽 경기 둔화로 성장 속도에는 일부 제약 예상
 - '25년까지는 내수와 고용의 견조세에 힘입어 미국(2.0%), 캐나다(1.2%)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2.9%)을 기록하며 유로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6년에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스페인은 팬데믹 기저 효과 소멸** 및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추가 성장 여력 제한
- * (유럽 주요국 '25년 및 '26년 경제성장을 전망치, IMF '25.10월 발표) : (유로존 평균) '25년 1.2% → '26년 1.1%, (독일) 0.2% → 0.9%, (프랑스) 0.7% → 0.9%, (이탈리아) 0.5% → 0.8%, (스페인) 2.9% → 2.0%
- ** 스페인의 최근 경제성장 흐름에는 '20년 역대 최저 역성장(-10.9%) 기록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기저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26년부터는 회복 국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호재 요인) 관광업 호황, EU 기금 집행 가속화, 주택·국방 투자 증가

- 관광 부문은 '26년에도 스페인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서비스업 전반의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
-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최종 마감('26년 말)을 앞두고,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가속화하며 친환경·디지털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
- '26년 주택 건설 투자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104억7천만 유로 규모 국방 투자는 '26년 경제성장률에 0.3%p 기여할 것으로 예상(BBVA 리서치)

□ (부진 요인) 정책 추진력 약화, 글로벌 불확실성, 구조적 제약

- 소수 연립정부 집권으로 정책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26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주요 법안 논의 입법 절차 지연 가능성 존재
-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유럽 주요국 교역 둔화 시, 스페인 수출 및 공급망에 간접적 영향 우려
- EU 기금 집행 종료 이후 재정 투자 공백 발생 가능성 상존, 정부의 투자 여력 축소 시, 성장세 유지에 제약 발생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47.3	47.4	47.5	48.1	48.6	49.1	49.7	50.3
명목 GDP	십억 달러	1,403.7	1,288.8	1,462.2	1,450.0	1,619.9	1,725.2	1,891.4	2,041.8
1인당 명목 GDP	달러	29,664	27,188	30,792	30,155	33,313	35,151	38,040	40,582
실질 성장률	%	2.0	△10.9	6.7	6.4	2.5	3.5	2.9	2.0
실업률	%	14.1	15.5	14.9	13.0	12.2	11.3	10.8	10.7
소비자물가 상승률	%	0.8	△0.3	3.0	8.3	3.4	2.9	2.4	2.0
재정수지(GDP 대비)	%	△3.1	△9.9	△6.7	△4.6	△3.5	△3.2	△3.2	△3.0
총 수출	백만 달러	334,022	308,308	379,916	415,414	422,522	424,141	-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518	1,722	2,287	2,307	2,055	1,954	-	-
총 수입	백만 달러	372,758	326,180	419,641	494,205	469,917	471,807	-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316	2,515	2,989	3,882	3,727	3,766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38,736	△17,872	△39,725	△78,791	△47,395	△47,666	-	-
경상수지	백만 달러	29,880	10,167	11,303	6,077	44,258	54,834	50,174	53,870
환율(연평균)	€/US\$	0.893	0.877	0.846	0.951	0.924	0.924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78	382	344	356	285	411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71	298	345	339	339	420	-	-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 달러/유로 환산 시 OFX 연평균 환율을 적용

스페인 무역·투자 통계는 상시 업데이트되므로, 확인 시점에 따라 과거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IMF('25년 10월 발표), EIU, Global Trade Atlas,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무역·투자통계(DataComex, DataInvex)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경제성장을 2.9% 전망(IMF, '25년 10월)
 - 관광업 호황, 공공투자 확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고용 증가가 외연적 성장 견인
 - '25년 스페인 경제는 주요 선진국 및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4년(3.2%) → '25년(2.9%, 잠정) → '26년(2.0%, 잠정)으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며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임
- (소비) '25년 민간 소비 증가 전망에도 소비 회복 체감은 미미
 -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2.9% 증가(EIU, '25년 9월)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 주거비 상승이 실질 구매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 일부 기초식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민간 투자) 민간 투자는 회복세를 보이나, 생산성 정체 및 외부 리스크로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
 - EU 경제회복기금과 정부 지원책이 민간 투자를 뒷받침, '23~'25년 민간 투자 성장세 유지
 - * 총 고정투자 증가율(EIU, '25년 9월): ('24) 전년 대비 3.0%, ('25) 4.4%(전망), ('26) 2.7%(전망)
 - 과거 건설 부문 의존도가 높았다면 현재는 재생에너지, 기계, 주택 등 생산성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전환
 - 다만, 투자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생산성 향상 속도도 더딘 편으로, 장기적 성장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
 - *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는 향후 투자 지속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가능
- (산업생산)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업일수 조정), 최근 수개월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
 - '24년 전체 기준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증가율은 0.4% 수준(스페인 통계청 '25년 10월 발표)
 - 월별로는 업종별 편차가 뚜렷하며, 에너지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지수 증가세를 보이나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산업 전반의 생산 회복세로 보기에는 미흡
- (대외교역) '25년 상반기 기준, 총 교역액 증가, 무역수지 적자 폭은 확대
 - '25년 상반기 스페인의 총 교역액은 4,194억 유로로 집계(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25년 8월 발표)
 - 수출은 1,971억 5,088만 유로(전년 동기 대비 +1.1%), 수입은 2,222억 6,360만 유로(전년 동기 대비 +5.4%)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2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
 - 동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251억 1,273만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
- (투자 유입) 어려운 대외 환경 속 '24년 외국인직접투자 선방
 - '24년 전 세계 FDI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가운데, 스페인의 FDI 유입은 24% 증가한 420억 달러 기록(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25년 10월 발표)
 - '25년 상반기 기준, 스페인의 FDI 유입은 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으나, 연말 투자 집중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비교는 어려움
 - * 주요 투자 산업 : 에너지, 통신, 정보서비스, 부동산, 금융 순
 - 주요 투자국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순('24년 기준)
- (투자 진출) '24년 대외 투자액은 411억 달러를 기록
 - 스페인의 해외투자는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아일랜드, 독일 순
 - 주요 투자 부문은 에너지, 통신, 금융, 부동산, 유통 순

2. 정치(정책) 환경

- (정부) 소수 연립정부 운영, 지역 정당과 협의 필수
- (정책) EU 기금 기반 친환경·디지털 산업 육성 정책
- (규제) 에너지, ESG 등 EU 신통상 규범 준수 필요

가. 정부 현황

□ 지방자치 권한이 강한 스페인 정치 체제

- 입헌군주제 및 지방자치 분권화 단일국가
 - 스페인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둔 입헌군주제 국가로, 행정권은 내각이 행사
 - 연방제 국가는 아니나 지방자치 권리가 강한 단일국가로, 17개의 광역 자치주(州), 50개의 도(道), 2개의 자치시(市)*로 구성
 - * 세우타(Ceuta) 및 멜리야(Melilla), 두 도시 모두 북아프리카에 위치
- 스페인 헌법에 의거, 자치주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통합성을 동시에 보장
 -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대변해 통치권을 행사, 각 지방자치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정부를 운영
 - * 스페인의 중앙정부-자치주 간 권한 배분은 헌법과 각 자치주의 자치 헌장에 따라 정해지며, 자치 헌장의 내용에 따라 자치주별 권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분리 독립 성향이 강한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은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긴장이 높은 편

□ 다당제 합의 기반 연립정부를 운영 중

- '23년 총선 결과 소수 연립정부 형태 지속, '27년까지 집권 예정
 - '23년 총선에서 국민당(PP)이 최다 의석(136석)을 확보했으나, 페이호(Feijó) 대표는 총리 인준 투표에서 과반(175석) 지지를 얻지 못해 총리 신임에 실패
 - 이후 사회노동당(PSOE)의 산체스 당시 총리 후보가 수마르(SUMAR) 및 지역 정당들과 협력해 총리로 재신임을 받아 소수 연립정부를 구성
 - 이에 따라 정책 추진 시 지역 정당들과의 협의와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친환경 전환 및 산업정책 주요 추진과제

- EU 경제회복기금 기반 전략산업 육성정책(PERTE) 추진
- 스페인은 EU 경제회복기금 중 최대 1,630억 유로(보조금 및 융자) 지원이 승인됨
- 이 중 412억 유로를 투입하여 '21년부터 '경제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PERTE)'를 시행 중
 - * '25년 5월 말 기준, PERTE는 총 256억 유로가 집행되었으며, '26년 8월 말까지 PERTE 배정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프로젝트 지원이 가속화될 전망
- 총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 추진
 - * 전기차 및 커넥티드카, 첨단 헬스케어, 재생·수소·에너지저장, 농업·식품, 언어 관련 인프라, 순환경제, 조선, 항공우주, 수자원 관리 디지털 전환, 반도체, 사회경제 및 돌봄, 산업 탈탄소화
 - * 주요 산업별 예산 비중 : 반도체(29.7%), 재생·수소·에너지 저장(26.2%), 전기차(10.0%) 순
- 기후·에너지 정책 및 친환경 전환 투자
 -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전력망 개선, 녹색수소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EU 기금 우선 배정
 -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법(PLCCTE)' 및 '국가에너지·기후변화통합계획(PNIEC '21~'30)'에 따라 집행하며 '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

스페인 PLCCTE 및 PNIEC 핵심 목표

분야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최종 소비에너지 48%, 전체 생산 전력 81% 재생에너지로 대체
내연기관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및 '50년 이후 주행 금지 •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및 신축 건물에 충전시설 설치 규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친환경 개보수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바이오 연료 생산 및 활용 계획 수립 등 • 화석연료 개발 지원 종료 및 관련 공공 투자 축소

자료: 스페인정부 관보(BOE)

스페인 2030 수소경제 로드맵 핵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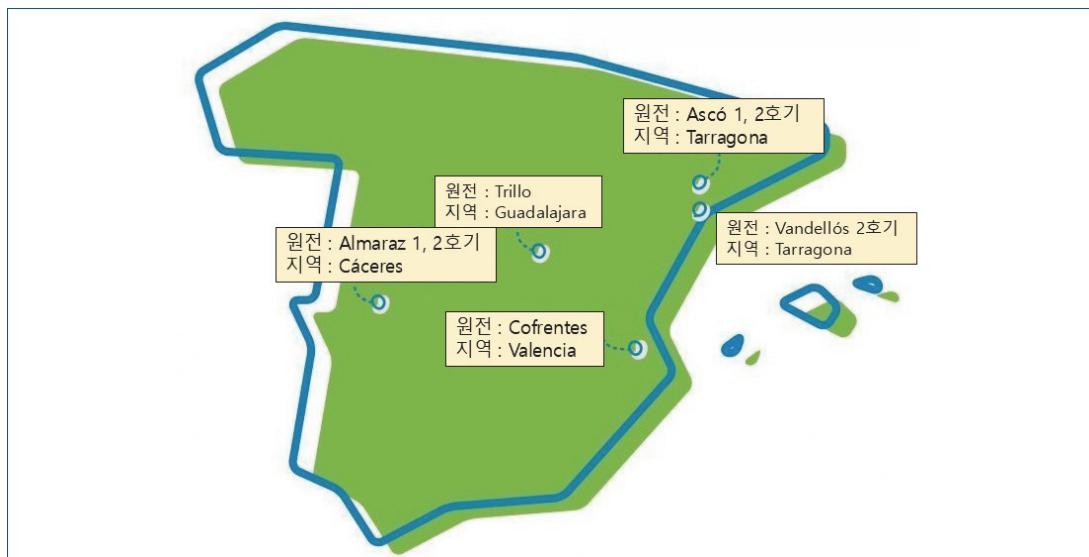
분야	주요 내용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총 4G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분해 시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까지 300~600MW 수준의 전기분해조 우선 구축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기준 전량 화색수소였던 전체 산업용 수소의 25%를 녹색수소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수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물 분해 또는 바이오 가스나 바이오매스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소 * 회색수소: 천연가스, 메탄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을 분해해 생산되는 수소
수송·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수소 버스 150대 및 수소차 5천 대 이상 보급 • 수소 철도 운행 노선 2개 구축 • 수소 충전소 100개 이상 설치 • 5대 항만 및 공항에 수소 기반 핸들링 기계 등 도입

자료: 스페인 정부,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정리

□ 탈원전 정책

- '27년부터 '35년까지 모든 원전 7개 모두 폐쇄 결정
 - '20년 발표한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 계획(PNIEC)을 통해 '27년부터 '35년까지 스페인 내 7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
 - * '24년 9월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PNIEC 개정본에서도 동일 목표 유지
- 향후 정권 교체 시, 폐쇄 시점이나 정책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
 -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폐쇄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향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스페인 가동 원전 위치〉



자료: 마드리드무역관 재구성

스페인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폐쇄 계획

원자로명	지역	발전용량(MW)	가동 시작 시점	폐쇄(예정)일
알마라즈 1호기(Almaraz I)	Caceres	1,049.40	1983년 9월	'27년 11월
알마라즈 2호기(Almaraz II)	Caceres	1,044.50	1984년 7월	'28년 10월
아스코 1호기(Ascó I)	Tarragona	1,032.50	1984년 12월	'30년 10월
아스코 2호기(Ascó II)	Tarragona	1,027.21	1986년 3월	'32년 9월
코프렌테스(Cofrentes)	Valencia	1,092.02	1985년 3월	'30년 11월
반데요스 2호기(Vandellos II)	Tarragona	1,087.14	1988년 3월	'35년 2월
트리요(Trillo)	Guadalajara	1,066.00	1988년 8월	'35년 5월

자료: 스페인 친환경전환·인구변화대응부(Ministerio para la Transición Ecológica y el Reto Demográfico)

□ 주당 법정 근로 시간 감축안 추진 일시 중단

- 정부 주도 법정 근로 시간 단축안 하원 통과 무산('25.9.10.)
 - 정부는 급여 삭감 없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5년 5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
 - 그러나, 동 법안은 '25년 9월, 하원 표결에서 부결되며 입법 추진에 제동
 - *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은 연립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연정 지지 정당 중 하나인 카탈루냐연대당(Junts per Catalunya)의 지지 이탈로 하원 통과가 무산됨
 - 현재 법안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추후 사회적 합의 및 정당 간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전망
 - * 국회 내 정당 간 입장 차 조율 및 협상력, 경기 상황 등이 향후 정책 추진 여부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ESG

- 스페인은 EU 차원에서 제정된 ESG 기준 준수
 - 스페인은 ESG와 관련된 EU의 각종 법안 및 규정* 등을 따르고 있음
 - *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CBAM(탄소국경제도), 지속가능 보고지침(CSRD), 지속가능 보고표준(ESRS), ESG 공시 플랫폼, 투명한 기업경영 평가 규정, 산림 전용 방지 규정, 강제노동 연관 제품 금지 등

3. 주요 이슈 Pick

가. '26년 예산안 통과 난항에 따른 정책 추진 애로

□ 개요

- '26년 국가 예산안 부결 가능성 확대
 - 스페인 정부는 '24년과 '25년 국가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며 헌법에 따라 '23년 예산안을 자동 연장하여 사용 중
 - '26년 예산안도 법정 제출 기한(9월 30일)을 넘겼으며,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지출 한도 설정, 재정 목표 확정 등)에서도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6년에도 '23년 예산안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정당 협조 필수, 협상 장기화
 - 현 사회노동당(PSOE)-수마르(SUMAR, 좌파 연합) 소수 연정은 의석 과반 확보를 위해 최소 4개 지역 정당의 지지가 필요함
 - 지역별 재정 배분, 자치권 확대 요구 등 핵심 사안을 둘러싼 지역 정당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장기화

□ 영향 및 시사점

- '23년 예산안 연장에 따른 공공투자 추진 제약 및 재정운용 비효율 심화
 - 국방비 증액, 주택 투자 확대, 발렌시아 수해(DANA) 복구, 对미 관세 대응 계획, 산불 피해 지원 등 현재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지출 항목들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예산안 자동 연장 시 기본 국정 운영은 유지되나 신규 정책·투자 추진에 제약 존재
 - * 세제 개편, 보조금 신설 등의 지원이 지연되며 대형 조달·인프라 사업도 차질 발생 우려
-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는 별도 재원으로 진행
 -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등 EU 경제회복기금을 통한 프로젝트는 집행 가능하나,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전략과의 연계 부재 시 사업의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 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저해, 사업 실행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스페인 정부 또는 자치주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사업 지역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전력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전망

□ 개요

- 전체 전력의 56.8%(14만 8,999G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 풍력·태양광 발전량 및 발전 설비 유럽 내 2위('24년 기준)
- 대정전 이후 정부·산업계·사회 전반에서 문제 인식과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25년 4월 28일 발생한 대정전은 전압 제어 미흡, 계통 진동 불안정, 발전소 제어 실패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
 - 동 사태로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이 부각되었고, 제도·기술적 전력망 재정비 불가피
 - 스페인 정부는 전력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 법령(Real Decreto-Ley 7/25)을 의회에 상정 했으나, 하원 승인 절차에서 부결('25.7.22.), 정부는 보완 후 재상정할 예정
- 스페인 정부, '30년까지 전력망 강화에 136억 유로 투자 발표('25.9.12.)
 - 기존 초고압망의 수용 능력(2,000MW)을 14배 확대한 27,700MW로 확대, 총 422건의 전력망 접속 프로젝트를 추진
 - 기존 발전소 중심에서 산업, 데이터센터 등 소비처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 전환
 - * 산업, 수소,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전력 인프라 전반(송·배전망 확충, 수요처별 접속 확대, 전력망 안정성 제고,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

□ 영향 및 시사점

- 재생에너지 발전만큼 중요한 전력망 연계·송전 역량 확보
 - 스페인의 대정전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기술적·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
 -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비 확충이 필요
- 정책·제도적 지원 체계 필요성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인프라 개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도 필수적
- 전력망 강화 시 필요한 각종 설비·자재 수요 확대 예상
 - 업계 전문가들은 노후된 기존 인프라 현대화와 신규 투자를 위해 송·변전망, 에너지 저장장치, 전압 제어 및 안정화 설비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다. 중국산 제품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 심화 우려

□ 개요

- 유럽 시장 내 중국 제품의 저가공세 확대
 - 중국의 생산 능력이 글로벌 수요를 초과하며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잉여 물량이 수출로 전환될 가능성 증대
 - 소비자* 외에도 스마트폰,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 * 스페인 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산 초저가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추세
 - 이로 인해 유럽 내 저가 제품 가격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對EU 한국 수출 기업 전반에도 납품단가 인하 압력 및 시장 점유율 하락 리스크 존재
-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한 추가 영향 우려
 - 미국의 對중국 관세 인상은 중국산 물량의 對EU 수출 우회를 유도하여 유럽 내 가격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 '25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對미 수출 상위 20개 품목(HS코드 4단위) 중 13개 품목(기계류, 전기·전자, 조명, 가구, 생활용품 등)이 對EU 수출 상위 품목에도 포함되어 두 지역 대상 중국의 수출 품목 구성이 상당히 유사
 -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차를 포함하여 주요 산업체, 소비자 수출 시장이 가격경쟁 압력에 직면할 전망

□ 영향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주요 스페인 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을 전망
 -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스페인 시장 확대 지속
 - * '25년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전체 시장의 8% 차지(현지 언론 Expansión, '25년 7월)
 - (철강) 스페인 전체 철강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철강 수입은 증가세
 - * '25년 상반기 스페인 철강(HS코드 72 기준) 수입은 10.8% 감소했으나, 對중국 수입은 10.3% 증가(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수출통계, DataComex)
- 우리 기업들은 고부가가치·프리미엄 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가격 경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라. 미국 관세정책 변화,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개요

- EU-미국 통상협상 타결 및 디지털 규제 갈등
 - '25년 7월 말, 미국은 EU산 대부분의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기로 합의
 - 협상 직후인 8월, 미국은 EU에 디지털 규제 철폐(DSA*, DMA**)를 요구했고 EU가 이를 거부하면서 9월 기준 상호 관세율의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디지털서비스법(DSA):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 및 정보 투명성 강화
 - * 디지털시장법(DMA): 시장 지배적 플랫폼(게이트키퍼)의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

□ 영향 및 시사점

- EU-미국 관세 협상 타결, 스페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
 - '24년 기준, 스페인의 对미 수출 비중은 4.6%(197억 달러), 수입 비중은 5.5%(261억 달러)에 그쳐, 미국의 15% 관세 부과가 스페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Global Trade Atlas, '25.9.17.)
 - 다만, 농산물(올리브유, 와인 등)과 기계·전기장비 등 일부 품목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스페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최소 7.2%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업: 기계·기계류(-16.2%), 의약품(-9.6%), 식품·담배(-2.6%)
- EU의 대미 교역 둔화 따른 스페인 수출 간접 피해 가능성
 - 스페인은 유로존 역내 수출 비중이 높아, 타 회원국의 대미 수출 감소 시 간접적인 수출 타격 불가피
 - 스페인은 미국에 완성차를 직접 수출하지는 않으나, EU 역내 국가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EU의 对미 자동차 수출이 위축될 경우 스페인 자동차 부품 산업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2. 유망 산업	27
3. 협력 기회	32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EU 내 경제 및 인구 규모 4위의 중대형 소비 시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 스페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전기차 등 EU 핵심 산업정책 연계 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추진
- 가격 민감도가 높고,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한 소비 특성을 고려할 때, 효능이 입증된 제품 중심의 진출이 효과적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EU 4위 경제 규모 및 인구 보유(IMF 기준)
 - (경제) '24년 기준, 스페인의 명목 GDP(1조 7,252억 달러) EU 4위*, 세계 15위**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
 - ** (참고) 대한민국: 세계 12위(1조 8,754억 달러)
 - (인구) '24년 기준, 인구수 EU 4위*(4,908만 명)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
- 수출입 비중, 대부분 EU 역내에 집중
 - '24년 기준, 스페인의 전체 수출 중 약 61.1%, 전체 수입 중 55.7%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입 모두 EU 역내 교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임
 -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역시 자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EU 역내 교역에 의존하며 ('24년 기준, Eurostat), 이는 단일시장 체계에 따른 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 간 규제 완화 등이 EU 역내 교역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
 - 스페인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관광, 요식, 운송 등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
 - GDP의 약 75%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며, 전체 고용에서도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음

□ 구매력, 소비 성향

- 타 서유럽 국가 대비 1인당 가용 지출 여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편
 - * 주요 서유럽국 AIC(실질 개인 소비) 지수('24년): (EU 평균) 100, (네덜란드) 120, (독일) 118, (벨기에) 112, (프랑스) 106, (이탈리아) 98, (스페인) 92 (Eurostat, '25년 6월)
- 새로운 기능이나 편의성보다는 유럽에서 검증된 사용 경험과 신뢰성을 우선시
 - 트렌드나 신제품에 대한 수용 속도가 느린 편(슬로우 어답터)으로, 기존에 익숙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K-콘텐츠 인지도 대비 구매 전환 저조
 - 非유럽권 트렌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K-콘텐츠의 인지도 상승이 즉각적인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주요 인증 *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서 인증제도는 EU 공통 기준 적용

- CE 인증
 - CE 인증은 제조사가 EU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EU의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만족했음을 자율적으로 선언하는 적합성 표시
 -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장난감,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 주요 산업 품목 전반에 적용
 - 제품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 절차 및 기술 요건이 상이하므로 CE 인증 대행기관을 통한 전문 자문 및 대응이 효과적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CPNP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로, 화장품 시장 출시 전 제품 정보를 사전 신고해야 함
 - * 등록은 EU 내 지정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PR)를 통해 진행하며 동 책임자는 제품의 안전성 검토, CPTN 등록, 사후 관리 전반을 담당
 - CPTN 등록을 위해서는 요구 서류* 준비와 함께 ISO 2276(화장품 GMP) 준수, 제품 라벨링 요건** 충족이 필수
 - * 필수 서류 : 화장품 안전성 평가(CPSR), 제품정보 파일(PIF) 등
 - ** 라벨 기재 사항 : 성분, 사용기한, 주의문구, 제조사 및 책임자 정보 등을 판매 대상국 언어로 표기

□ 스페인 시장의 전략적 가치

- EU 내 중대형 소비 시장으로서, EU 전략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인 시장
 - 경제 규모 및 인구 기준 EU 4위로, 유럽 내 중대형 소비 시장에 해당
 -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전기차 등 EU 핵심 산업정책과 연계된 분야 중심으로 산업 구조 다변화 및 투자 확대 추진 중
- 역사, 언어,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통상·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관계 유지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수출 증가세 지속
 - 최근 3년간 스페인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25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212억 달러 기록
- (수입 규모) 수입 회복세 전환
 - '25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 앞서 '23년에는 4.9% 감소, '24년에는 0.4% 반등하며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스페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422.5	1.7	424.1	0.4	221.2	1.6
역외수입	469.9	△4.9	471.8	0.4	250.5	5.9
무역수지	-47.4	△39.9	-47.7	0.6	-29.3	56.7
총 교역	892.4	△1.9	895.9	0.4	471.7	3.8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1.)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EU 역내 중심의 수출 구조
 - '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 중 EU 역내 비중은 61.1%에 달함
 - * 주요 수출 대상국: 프랑스(14.7%), 독일(10.4%), 포르투갈(8.5%), 이탈리아(8.3%), 영국(6.6%) 순
 - * (참고) 스페인의 對美 수출 비중: 4.4%
- (수출 품목)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자동차, 기계류, 전기기기, 의약품, 에너지, 식품 등
 - * 주요 수출 품목(HS코드 4단위 기준): 승용차(9.0%), 의약품(3.7%), 석유(3.4%), 자동차부품(2.7%), 돼지고기(1.5%) 순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EU 및 중국 중심의 수입 구조
 - '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입 중 EU 역내 비중 56%, 대중 수입 비중 8.6%(3위)
 - * 주요 수입 대상국: 독일(12.8%), 프랑스(9.6%), 중국(8.6%), 이탈리아(8.1%), 네덜란드(7.2%) 순

- (수입 품목) 수출과 유사한 수입 품목

- 에너지, 자동차, 기계류, 전기기기, 의약품 등

*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기준): 석유(6.3%), 승용차(5.6%), 의약품(4.2%), 천연가스(3.0%), 자동차 부품(2.8%) 순

* (참고) 스페인의 對美 수입 비중: 6.0%

□ 對韓 교역 동향

- 스페인, 한국의 수출·수입 대상국 각각 31위, 33위('25년 7월 기준)
 - EU 회원국으로, 한-EU FTA('11년 7월 발효) 적용에 따라 약 98.7% 품목 무관세 교역
- 교역 규모
 - '25년 1~7월 기준, 한-스페인 총 교역액 3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 (한국의 對스페인 수출) '25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20.6억 달러)
 - * 자동차 판매 증가, 철강·석유화학 판매 감소
 - (한국의 對스페인 수입) '25년 1~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14.5억 달러)
 - * 의약품, 자동차 부품 수입 감소
 - (한국의 對스페인 무역수지) 6.1억 달러 흑자 기록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강, 석유화학 제품, 의약품 등

한국의 對스페인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3,390	1.6		총 수출	2,059	1.6
1	기타 자동차	596	28.6	1	기타 자동차	351	△1.8
2	승용차	396	△11.6	2	승용차	237	0.7
3	합성수지	256	△1.3	3	전기자동차	182	230.4
4	증후판	178	33.4	4	합성수지	179	16.4
5	전기자동차	145	△18.5	5	아연도강판	92	62.7
6	자동차 부품	143	0.0	6	자동차 부품	71	△18.3
7	석유화학합성원료	116	12.5	7	증후판	66	△51.0
8	아연도강판	97	△25.4	8	타이어	41	△18.0
9	타이어	82	9.2	9	석유화학합성원료	41	△40.7
10	기타화학공업제품	74	△12.8	10	의약품	37	37.1

주: MTI 4단위 기준, 기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21.)

- (수입) 식품*, 의약품, 금속광물, 가방, 자동차부품 등

* 육류, 올리브유, 음료 등

한국의 대스페인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2,415	△3.0		총 수입	1,448	△0.2
1	가축육류	364	△19.7	1	가축육류	255	1.7
2	의약품	285	0.0	2	의약품	159	△11.7
3	기타 금속광물	178	△24.2	3	기타 금속광물	109	19.8
4	식물성 유지	152	42.7	4	식물성 유지	100	21.4
5	자동차 부품	139	36.5	5	음료	64	31.8
6	음료	98	54.3	6	가방	50	△15.6
7	가방	98	0.6	7	자동차 부품	47	△48.7
8	나프타	52	0.0	8	나프타	42	96.6
9	아연괴 및 스크랩	47	2,911.8	9	합성수지	26	29.1
10	합성수지	38	△0.6	10	사료	22	121.4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21.)

- 한국의 해당국(권역) 내 수출 시장 점유율

- '25년 1~7월 기준, 한국은 스페인 전체 수입의 0.9%를 차지하며, 수입 대상국 24위를 기록
- (자동차) 한국 자동차 브랜드는 현지 시장에서 상위권 유지
 - * '25년 1~9월 신차 판매 기준, 현대차 5위, 기아차 7위 기록
- (화장품) 한국산 화장품(HS코드 3304)는 인지도 확대와 함께 '25년 1~7월 기준 스페인 전체 화장품 수입의 2.9%를 차지하며, 수입국 기준 8위를 기록

□ 스페인 주요 수출 성공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스페인 진출 략 : 바이오테크 기반 뷰티 디바이스기업 A사 (현지 B사, C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I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가 제공할 만한 추천 제품 및 시술을 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
 - 딥러닝 기반 분석으로 피부·두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자동 진단, 비포-애프터 비교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제품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 필수 인증 : CE
- 성약 소요 기간 : 약 4~5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25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한국관 참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기존 스페인 시장에 없던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존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능과 사용 경험을 제공한 것이 핵심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함
 - 효능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맞춤형 제품임을 강조하는 것이 시장 진입 및 수요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성공 사례로 보는 스페인 진출전략 : AI 기반 실시간 번역 스마트 안경기업 D사(현지 E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번역 스마트 안경 제조 및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AI를 통해 12개 언어의 오디오를 실시간 자막으로 제공함
 - 주요 고객은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유학생 등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스마트폰이 아닌 차세대 디바이스인 스마트 안경으로 언어적 편리함 제공
- 필수 인증 : CE
- 성약 소요 기간 : 2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24년도 국제 교육 기술·혁신 전시회(SIMO) 참가,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지사화 사업 참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해당 제품은 언어 장벽 제거 및 청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
 - '25년 6월부터 발효된 EU 접근성법(EAA, European Accessibility Act)에 따라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접근성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고령화 및 만성 질환 증가로 인한 보조 기술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이외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낮은 편
 - 중국은 스페인의 아시아 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25년 1~6월 기준 스페인의 12위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
 - 스페인의 對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9% 차지
 - * 주요 교역품('25년 상반기 기준) : (對중국 수출) 의약품, 육류, 광물, 기계, 플라스틱 / (對중국 수입)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가구, 의류
 - '25년 상반기 기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수출 5.9%, 수입 10.8% 수준이며,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각각 1.4%, 1.1%, 0.5%임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EU 공통 기준을 따르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별도 규제나 차별적 조치 없이 타국 제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 '24년 기준 GDP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75.8%)이 가장 높고, 이후 제조업(15.6%), 건설업(5.7%), 농수산업(3.0%) 순으로 차지
 - 서비스업 세부 분야에서는 유통·교통·요식업(24.1%)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 공공행정·교육·의료(17.3%), 부동산(11.5%), 전문과학·기술활동(9.1%) 순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관광) GDP의 12.3% 차지, 핵심 경제성장 동력
 - '24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9,376만 명으로 세계 2위 기록
 - * 1위: 프랑스(1억 명)
 - 외국인 관광객 연간 지출액은 1,261억 유로로, 1인당 평균 1,345유로 지출
 - 관광업 종사자 수는 269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12.7%를 차지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임
- (금융) 유럽 내 대형 은행 다수 보유
 - '25년 기준 S&P 선정 유럽 50대 은행 중 스페인계 은행 4곳* 포함
 - * Santander(4위), BBVA(17위), Caixa(20위), Sabadell(39위)
 - * 4대 은행 총 자산은 약 3.6조 유로로 프랑스, 영국에 이어 유럽 3위
 - 주요 은행들은 본국보다 중남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으며 해당 지역 금융 시장을 주도

- (MICE) 관광 기반의 국제 전시 산업 성장
 - '24년 기준 국제 전시회 개최 건수 세계 3위(536건)
 - * 1위: 미국(709건), 2위: 이탈리아(635건)(국제컨벤션협회(ICCA))
 - * 도시 기준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세계 4위를 차지
 - 특히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된 블레저(Bleisure)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건설) 해외 건설 수주 세계 3위
 - '24년 스페인 건설사 해외 수주 규모 기준, 세계 3위(665억 달러)
 - * 1위 : 중국(1,273억 달러), 2위 : 프랑스(817억 달러)
 - 주요 건설사로는 ACS(전 세계 1위), Acciona(15위), FCC(27위), Sacyr(34위), OHLA(42위) 등이 있음
 - * 자료: ENR(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25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 스페인 건설사들의 주요 진출 시장은 미국과 대양주로, 각각 전체 해외 건설 매출의 44.6% 및 21.8% 차지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외국인 투자 420억 달러로 최근 3년 중 최대
 - 외국인 투자액은 '22년 339억 달러, '23년 339억 달러, '24년에는 420억 달러 기록(전년 대비 23.9% 증가)
 - * '25년 상반기에는 95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로 둔화세 전환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에너지 공급, 통신, 부동산, 도매, 전기기기 제조 분야 중심
 -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 중 에너지 공급 부문 비중이 11.9%로 가장 높음
 - 이어 통신(9.7%), 부동산(7.0%), 도매(5.6%), 전기기기 제조(3.5%), 석유·가스 채굴(3.3%) 순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중국) 스페인 전체 FDI 중 비중은 낮으나, 스페인 전략 산업 중심으로 진출 확대
 - 최근 3년('22~'24년)간 전체 외국인 투자 중 0.4% 차지

- 주요 투자 분야는 R&D(28.5%), 자동차 제조(14.8%), 비금속 제조(10.5%)이며, 기술 및 제조업 중심으로 활발한 진출 양상을 보임
 - * 중국 기업의 스페인 투자 주요 사례: (전기차) Chery 바르셀로나 전기차 생산라인(4억 유로 규모, '25년 4분기 가동 예정), (배터리) CATL·Stellantis JV 사라고사 기가팩토리 건설(41억 유로 규모, '26년 말 가동 예정), (배터리) Envision, 카세레스 기가팩토리 건설(25억 유로 규모, '27년 가동 예정), (그린수소) Hygreen Energy, 우엘바 그린수소 생산공장 및 말라가·세비야 관련 기자재 생산공장 건설(총 20억 유로 규모, 가동 시점 미정)

□ 스페인의 對韓 투자 현황

- 스페인의 對韓 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5년 1~9월 對韓 투자액은 64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
 - '23년 4.3억 달러 투자 대비, '24년 1,470만 달러로 대폭 감소
 - 최근 3년간 對韓 투자는 전기·가스 공급(48%), 운송용 기계(자동차) 제조(42.5%)에 집중
 - * (전기·가스 공급) 해상풍력발전 개발, (운송용 기계) GM의 對한국 투자 스페인 법인 경유 구조

□ 한국의 스페인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스페인 투자는 일부 국내 기업의 제조업 투자로 '24년 일시적 증가
 - '24년 한국의 對스페인 투자액은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3% 증가
 - '25년 상반기에는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
- 투자 분야의 점진적 다변화
 - '90년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중심 판매법인 설립 위주
 - '10년대 이후 자동차 부품, 화학, 수처리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
 - '20년 이후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 분야 다양화

한국의 對스페인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 신고 금액 (백만 달러)	28	△77	14	△49	266	1,773.4	54	△41.9
신규 법인 설립 건수 (%, 건)	17	325 (+13건)	8	△52.9 (△9건)	7	△12.5 (△1건)	0	△100 (△1건)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현대모비스,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배터리시스템(BSA) 생산공장 설립

- (기업정보) 자동차용 부품 제조기업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동화 핵심 부품 선도업체로 도약
- (성공사례)
 - '23년, 현대모비스는 폭스바겐과 대규모 BSA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스페인 나바라주에 전용 생산공장 설립 투자 결정
 - '30년까지 스페인 공장에 1,7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30만 대 분량을 생산하며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기반 소형 SUV에 BSA를 공급할 예정
 - '24년 4월 착공하였고 '25년 하반기 완공을 계획 중이며 '26년 폭스바겐 신차 양산 일정에 맞춰 본격 가동될 전망임
- (시사점)
 - 스페인은 독일에 이은 유럽 내 자동차 생산량 2위 국가로, 현대모비스는 조립 중심의 현지 자동차 산업 구조에 고부가가치 전동화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완성차업체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사 인근 직서열 공급 방식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
 - 현대모비스의 스페인 공장은 서유럽 시장 진입의 전초기지로 활약할 전망이며, 유럽 내 추가 수주 및 고객사 다변화 가능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유럽 시장 공급망 대응을 위한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공장 설립

- (기업정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이차전지용 동박 제조사
- (성공사례)
 - '23년, 스페인 카탈루냐주 몬로이치에 동박 생산공장 설립 투자 결정
 - '25년 6월 착공, 8월 기준 부지 정리 중이며 추가 인허가 절차 진행 중. 공장 준공 및 상업 가동은 '28년 예정
- (시사점)
 - 총 투자 규모 약 1조 8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400명으로 예상되며, 카탈루냐 주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전략 산업 프로젝트'로 지정함
 - 스페인은 인근 타 유럽국에 비해 부지, 인건비, 산업 전력, 설비 구축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의 고부가 제조업 유치 전략과 투자자의 사업 추진 방향이 맞물리며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투자 여건
 - 스페인은 지자체별로 입지 조건 및 인센티브 제도가 상이함
 - 투자자는 각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여건을 파악하고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해야 함
- 노동법 및 복무규정 차이로 인한 노무관리 부담
 - 스페인은 산별노조 중심의 강력한 노동조합 체계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운수업 등에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 하계 단축 근무, 유급 공가, 병가 보장, 유연한 휴직제도, 야간 수당 등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 근로 시간 기준으로는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인력 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22년 노동법 개정 이후 계약직 고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한국인 인력 확보 애로
 - 스페인에서 한국인을 고용하려면 취업 비자 획득이 필수적이며, 스페인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비자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 취업·거주 허가 → 취업 비자 발급 → 사회보장번호 등록까지 8~12개월 소요
-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진입 규제 없음
 -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지 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 활동 가능
 -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며, 법인 설립 이후 스페인 내 규제는 자국 기업과 동일 적용

2. 유망 산업

가. 재생에너지

□ 개요

- 세계 상위권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보유
 - '24년 기준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91,830MW), 세계 8위*, EU 2위
*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순(IRES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 차지
 - '24년 기준, 스페인 전체 발전 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66%에 달함
 -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절반 이상임
* 세부 비중('24) : 풍력(23.2%), 태양광(17.0%), 수력(13.3%) 순(스페인 전력공사(Red Eléctrica))
 - 스페인 정부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수출입 동향('25년 상반기)
 - (수출) 태양광·전력망 기자재는 증가, 풍력 기자재는 감소
 - (수입) 전력망 기자재는 증가, 태양광·풍력 기자재는 감소

'25년 상반기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주요 품목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코드)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태양광 모듈 (8541.43)	79	2.1	694	△35.7
풍력터빈 (8502.31)	96	△41.0	27	△36.5
송전케이블(고전압) (8544.60)	90	22.6	158	62.5
풍력타워 (7308.20)	172	△31.6	67	△33.9
변압기 (8504)	1,497	22.1	1,637	13.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확인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대정전('25.4.28.) 이후 전력망 인프라 개선 필요성 부각
 - 대정전은 전압 제어 한계, 계통 내 이상 진동, 발전소 차단 실패 등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연쇄 과전압에 기인
 - 대정전 이후 노후 전력망 개선과 신규 투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복잡해진 전력 수급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태양광 중심 대형 프로젝트 개발
 - 최근 스페인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풍력 대비 입지 제약이 적고 설치 기간이 짧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발전 단지 조성 확대

스페인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이베르드롤라 (Iberdro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라망카(Salamanca) 지역에 31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 • '25년 9월부터 시운전 시작, 약 15만 5천 가구 전력 공급 가능
엔데사 (Ende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르시아(Murcia) 지역에 14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 • '25년 1월 착공, 완공 시 엔데사의 무르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 설비가 될 예정
토탈에너지 (Total Ener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비야(Sevilla) 지역에 263MW 규모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 '25년 5월 가동 시장, 약 15만 가구 전력 공급 가능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현지언론 종합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전력망 개선 관련 기자재 신규 수요 확대
 - 현지 업계는 향후 수년간 송배전 인프라 투자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주요 기자재 교체 및 신규 설비 도입 수요가 확대될 전망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함께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업계 전문가가 지목한 우선 교체·투자 필요 주요 설비

구분	필요장비
송전 장비	220kV 및 400kV급 고압 송전선 케이블, 나선형 도체(Bare Conductors), HTLS 도체(High-Temperature Low-Sag Conductors)
변전소	220kV 및 400kV급 고전압용 전력 변압기, 교류용 배전 변압기, GIS(가스 절연 변전소)
안정화 장비	동기 콘덴서(Synchronous Condenser), STATCOM(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개폐 장비	220kV 및 400kV급 차단기(Circuit Breaker)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변환기(Converter/PCS)
송전 기술	HVDC(초고압 직류 송전기술)-장거리 송전용

자료: KOTRA 마드리드무역관 기업 직접 인터뷰

나. 자동차

□ 개요

- '24년 기준 스페인은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238만 대), 4위 소비국(122만 대)
 - GDP 기여도는 7.4%이며, 고용 비중은 9.0%를 차지
 - * 자료: 스페인자동차제조사협회(ANFAC) '24 연례보고서
 - (생산) '25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 122만 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
 -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수출국 수요 감소 및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 영향
 - (판매) '25년 상반기 기준, 신차 판매대수 72만 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
 - * 전기차(BEV+PHEV) 판매 확대가 상반기 실적 견인
- 전기차(BEV+PHEV) 생산 및 판매는 증가세이나, 보급률은 EU 국가 중 하위권
 - (생산) '25년 상반기 전기차 생산 11.8만 대(전체 생산의 9.6%),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 (판매) '25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 11만 대(전체 판매의 15.4%), 전년 동기 대비 83.1% 증가
 - (보급률) '24년 신차 등록 중 전기차 비중 11.4%로 EU 평균(20.7%) 하회
 - (인프라) '24년 기준 전기차충전소는 38,725기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으나, 인구 백만 명당 806기에 불과해 EU 평균(1,953기) 대비 크게 부족한 수준
- 최근 수출입 동향('25년 상반기)
 - (수출) 주요 수출국 수요 둔화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 수출 금액 전반적으로 감소
 - (수입)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수입 증가, 기타 차량 및 부품 수입은 감소

'25년 상반기 스페인 자동차 산업 관련 주요 품목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코드)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자동차 (8703)	19,972	△7.7	14,061	15.3
버스 (8702)	204	△8.4	362	△44.2
트럭 (8704)	2,784	△16.5	1,823	△5.3
자동차부품 (8708)	5,995	△5.3	7,083	△19.4
전기차 배터리 (8507)	666	△2.1	1,309	3.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유럽, 미국, 일본 등 19개 완성차 브랜드가 스페인 내 17개 조립공장 가동 중
 - Ford, IVECO, Mercedes-Benz, Daimler Truck, Nissan, Stellantis(Citroën, Peugeot, Lancia, Fiat, Opel, Toyota), Seat-Cupra-Audi, Hispano-Suiza, Volkswagen, Renault-Mitsubishi, Ebro
-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합작, 위탁 생산을 통해 스페인 내 생산 거점 확보 중

스페인 전기자동차 산업 주요 중국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체리 (Ch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ro와 합작, 바르셀로나(Barcelona) 공장에서 '25년 4분기 전기차 생산 개시 예정 '27년까지 연 5만 대 생산 목표
립모터 (Leapmo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라고사(Zaragoza) 공장에서 전기차 현지 생산 추진 중 '26년 3분기 생산 개시 목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현지언론 종합

-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반 확대

스페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스텔란티스 (Stellantis) 및 CATL(中) * 폭스바겐 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고사(Zaragoza) 지역 기가팩토리 건설 중 • '26년 말 가동 예정, 연간 최대 50GWh 규모
파워코 (Power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렌시아 지역 기가팩토리 건설 중 • '26년 생산 가동 계획, 생산 규모는 초기 연간 40GWh에서 향후 60GWh까지 확대 계획
엔비전 (En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세레스(Cáceres) 지역에 기가팩토리 건설 중 • 연간 30Gwh 규모, '26년 중 1차 가동 목표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현지언론 종합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전기차 부품 공급망 진출
 - 스페인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 전환 확대에 따라 핵심 부품 수요 증가
 -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전기차 공급망 내 입지 확보 사례
 - * 현대모비스 : 나바라(Navarra)주 전기차 배터리시스템(BSA) 공장, '26년 가동 전망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카탈루냐(Cataluña) 몬로이치(Mont-roig del Camp) 지역 배터리용 동박 생산 공장 '28년 가동 예정

3. 협력 기회

가. 프로젝트

□ 상호 보완적 협업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공동 진출 가능

- 각국 기업의 보완적 수주 이력 및 역량을 활용해 제3국 프로젝트 수주 시 시너지 창출
 - 스페인 기업은 해외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수주 실적과 네트워크를 보유
 - * '24년 매출액 기준, 전 세계 TOP 250에 포함된 스페인 건설사(9개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81%, 한국 건설사(12개사)는 35.5%(ENR '25년 보고서)
 - 한국 기업은 공정 준수와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공 역량을 측정
 - 프로젝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단계에서 양국 기업은 각자의 수주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협업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3국 공동 진출 시 수주 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제고

스페인 및 한국 주요 건설기업 상위 해외 매출 지역 및 규모(스페인 기준 정렬)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스페인 기준)	지역	스페인	한국	
1	미국	금액	29,654	
		비중	44.6	
2	호주	금액	14,470	
		비중	21.8	
3	유럽	금액	10,759	
		비중	16.2	
4	중남미	금액	6,954	
		비중	10.5	
5	캐나다	금액	2,095	
		비중	3.2	
6	아시아	금액	1,601	
		비중	2.4	
7	중동	금액	797	
		비중	1.2	
8	아프리카	금액	185	
		비중	0.3	
총 해외 매출액		금액	66,514	
		비중	100	

자료: ENR(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25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성공 사례 ① (한국,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런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 투자 및 시공('19~'25)

- (개요) 런던에서 추진된 민관협력(PPP) 방식의 대형 터널 사업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 및 시공에 동시 참여
- 내용
 - 런던 템스강 북쪽 실버타운과 남쪽 그리니지를 연결하는 약 3km 규모의 터널로, 기존 블랙월 터널의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기획
 - 영국 교통 당국(TfL)이 발주한 총 15억 파운드(약 2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SK에코플랜트, 스페인 신트라(Cintra), 영국 애버딘(Aberdeen Standard Investments), 네덜란드 밤(BAM PPP PGGM) 등 4개사와 함께 투자 컨소시엄 리버링스(RiverLinx)를 구성해 사업에 참여
 - SK 에코플랜트는 투자뿐 아니라, 시공 컨소시엄에도 참여하여 스페인 페로비알 아그로망(Ferrovial Agroman), 영국 밤 누탈(BAM Nuttall)과 함께 EPC를 수행, 해당 터널은 '21년 착공 후 '25년 4월에 개통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서유럽 PPP에 참여한 사례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선진시장 내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을 보여줌
 - SK에코플랜트는 트루키예, 싱가포르, 카타르 등에서 대구경 TBM(회전식 터널 굴착기) 기반 터널 시공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기술 레퍼런스가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경쟁력으로 작용함
 - 동 프로젝트는 각국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한 협력 사례로, 스페인은 PPP 수행 및 터널 시공 경험, 영국은 현지 네트워크와 인허가 대응 역량, 한국은 TBM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함



성공 사례 ② (한국, 스페인, 캐나다) 캐나다 사이트-씨(Site-C) 댐 건설 프로젝트('15~'25)

- (개요) 한국, 스페인, 캐나다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발주 대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공동 참여
- 내용
 - Site C 수력발전소는 캐나다 피스강에 건설된 총 1,1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로, 연간 5,100GWh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160억 캐나다 달러(약 15조 7천억 원) 투입
 - 삼성물산은 '15년 브리티시컬럼비아 수전력청(BC Hydro)과 계약을 체결하고,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 캐나다 페트로웨스트(Petrowes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 사업을 수행
 - '15년 착공 후 '24년 10월 첫 번째 발전기 가동을 시작으로, '25년 8월까지 총 6기 발전기 모두 가동되며 전면 운영에 돌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삼성물산은 발전소 주요 구조물 시공을, 악시오나는 수력 및 토목 시공을, 페트로웨스트는 현지 장비·자재 조달 및 인력 운영을 담당
 - 각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 현지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국적 공동도급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 사례로 평가

나. 공동 R&D

□ 양국 공동 R&D를 통한 전략 산업 경쟁력 제고

-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양국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동 R&D를 통해 각국의 기술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
 - 공동 과제 기획부터 연구개발, 실증, 산업 현장 적용, 상용화 등 R&D 전 주기 단계에서 협력 가능
 - 기술 혁신과 상용화를 통해 양국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동반 진출 기반 확보
- 양국 전략 분야 중심의 협력 기반 구축
 - 양국이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교통, 과학, 산업기술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
 - * 한-스페인 체결 주요 MOU: 과학기술 협력('15년 10월), 산업기술 협력('15년 10월), ICT 협력('17년 2월), 인프라·교통 협력('17년 3월),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21년 6월)
 - 전략 분야 중심의 공동 R&D 추진 시, 기술개발과 산업 적용 간 연계 효과가 높음

성공 사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CDTI(스페인 기술개발·혁신센터)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24)

- (개요) 한(산업통상자원부, KIAT)-서(과학·혁신·대학부, CDTI) 양자 공동펀딩형 R&D
- 내용
 - 한-스페인 정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전략 분야(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저장)에서 양국 기업과 연구 기관이 함께 하는 R&D 프로젝트로, 한국(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스페인(중소·대기업) 기업 및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 프로젝트를 기획 및 수행
 - 양국 기업이 각각 자국 참여주체에게 연구개발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양국 참여자는 연구 및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양국 간 기술 협력은 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작용
 - 공동 R&D 성과를 활용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36 |
| 2. 진출전략 | 38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입헌군주제 단일 국가이며 내각이 국정 운영, 지방자치 권한이 강해 자치주별 정책·규제 차이가 존재
- 소수 연립정부 구성으로 정책 추진 시 소수 의석 지역 정당과의 합의가 필수, 정책 추진 속도에 제약
- EU 기금 기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 적극 추진



경제(Economic)

- '25년 주요 EU 국가 및 EU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 예상, '26년부터는 경제성장 완만세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관광 호황,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고용 증가 등이 외연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스페인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EU 회원국으로, 전체 교역의 상당부분이 EU 내에서 발생



사회문화(Social)

- 전반적인 소비문화는 보수적이며, 기존 사용 경험이 검증된 제품을 선호함
- 새로운 트렌드나 제품 수용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음
- SNS 및 인플루언서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품의 실제 효과와 신뢰성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



기술(Technological)

- 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개선과 신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력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설비와 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통신 네트워크 강화 및 AI 기술 도입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도모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한-EU FTA에 따른 관세 혜택
- K-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
- 스페인에서 한국은 첨단기술과 혁신의 이미지 보유

약점(Weakness)



- EU의 각종 인증 및 ESG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대비 부족
- 스페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투자 소극적

기회(Opportunity)



- 양국 관계 활성화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21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스페인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확대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
- 스페인뿐 아니라 중남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가능

위협(Threat)



- 타 EU 국가보다 엄격한 통관 절차 외에 EU 차원의 신통상 규제와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 가격에 민감하며, 보수적이고 신중한 소비 성향으로 인해 초기 진입이 어렵고, 마케팅 및 신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 요구
- 스페인 바이어는 시장 반응 확인 후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을 선호, 초기에는 타 유럽 주요 시장처럼 높은 MOQ 요구가 어려운 설정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EU 관세 혜택과 한국산 기술·혁신 이미지를 활용해 EU 친환경 정책 및 공급망 진입 기회에 적극 대응
- K-콘텐츠와 연계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소비자 시장 진출 확대

한국산 제품의 혁신
이미지를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 전개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현지 저가 경쟁 제품과 차별화, 가격 경쟁 리스크 완화
- EU 친환경 소비 기준 강화에 대응해 '혁신+친환경' 이미지를 적극 부각

성능·가성비
+
친환경 차별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파트너사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접근성 향상
- ESG 및 친환경 인증 역량을 확보해 EU 신통상 규제에 대비

현지 파트너십 확대,
규제 대응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보수적 소비문화에 대응한 맞춤형 현지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전개
- 대형 유통망·바이어와 공동 프로모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비용 절감과 시장 진입 효율화
- 인증,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 인증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한 초기 마케팅
적극 투자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전력 기자재

피부미용 의료기기

소비재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전력망 인프라 개선 및 신규 투자 수요를 활용, 송·변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품목을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납품

- 전시회·학회 참가, 현지 피부과 전문의 및 에스테틱숍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품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 및 사용자 대상으로 효능 검증

- K-콘텐츠, 친환경 트렌드를 활용, 화장품, 팻케어 용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초기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SNS/인플루언서 기반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

전략 ①**(전력 기자재)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납품****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24년 기준) 전체 전력의 56.8%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유럽 내 재생에너지 발전 선도
 - 대정전('25년 4월) 발생 이후 전력망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 중요성 부각
- (우리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전력 기자재·설비 수출 시 국적보다 가격 경쟁력, 품질 신뢰도, 납기 준수 능력이 핵심 평가 기준이며, 해당 요소를 입증할 경우 공급망 진입 가능성 충분

□ 현지 동향

- 풍력·태양광 중심의 설비 증설 지속, 발전 설비의 66%가 재생에너지
 - * '24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8만 5,144MW이며, '24년에만 7,279MW(전년 대비 9.3%)가 추가 설치됨
- 스페인 전력망 공사(REE)는 고기능 기자재 및 디지털 솔루션 도입 확대 중
 - * 동기조상기, STATCOM, HTLS 도체, SATA 배터리 시스템 등
- 대정전 이후 신규 설비 증설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인프라의 현대화 필요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
 - 스페인 정부는 '30년까지 전력망 인프라 강화에 약 13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유망 품목

- (송·변전) 고압 송전선 케이블, 나선형 도체, HTLS 도체, 고전압용 변압기, 교류용 배전 변압기 등
- (안정화 장비) 동기 콘덴서, STATCOM
- (기타) 개폐 장비(차단기),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 * 에너지 저장장치(ESS, BESS) 장비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보조금 지원 대상
- (기술) HVDC(초고압 직류 송전기술)

□ 진출전략

-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 모델을 통해 수주 경쟁력 확보
 - 설치 이후 유지보수(A/S) 및 긴급 대응 역량을 요구하는 전력 설비 특성상 현지에 기술 대응 체계를 갖춘 파트너 확보가 필수
 - 제품 설치, 유지보수, 성능 시험 등 기술 실무 교육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파트너사를 통해 프로젝트 입찰 정보 조기 접근 노력이 필요

전략 ②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가 대상 효과 검증형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외모 개선 문화 확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중장년층 중심 수요 증가, 비침습적 시술 선호, 의료 관광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시장 성장세
 - 기준 젊은 여성 중심의 수요에서 중장년층과 남성 고객층으로 확대되며 미용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 여력과 수요 기반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전시회 및 학회 기반의 브랜딩, 임상 기반 설득력 확보 필요

□ 현지 동향

- 인구·문화 변화와 최신 기술 도입 확대 추세가 복합 작용하여 시장 성장세
 -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소비자층이 남성, 중장년층으로 확대
 - * (피부미용서비스 이용률) 여성 : 69%, 남성 : 31%
 - (연평균 지출액) 여성 : 1,027유로, 남성 : 800유로
 - (16~34세 비율) 41%, (35세 이상 비율) 59%로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음
 - (스페인 미용의학학회 SEME, '23)
- 피부 자극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비수술적 시술 중심으로 수요 집중
 - IPL(기미, 주근깨 제거), 주사요법(필러, 보톡스), HIFU, PRP
- 강한 일조량, 체모 관리 문화에 따른 제모 시술 수요 지속

□ 유망 품목

- (비침습 시술 관련 기기) IPL, 레이저 색소 침착 제거, 고주파 리프팅, 바디 윤곽 개선, 콜라겐 재생 유도 장비
- (다기능 복합 장비)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시술이 가능한 멀티 기기
 - * 예시 기기 : Harmony XL Pro(여드름 치료, 색소 치료, 리프팅 시술), Soprano Titanium(전 피부타입 무통 제모)
- (피부 진단기기) 고해상도 피부 분석기기, AI 진단 시스템 등

□ 진출전략

- 학회·전시회를 통한 제품 효과 입증 및 업계 전문가와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
 - 주요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및 효과를 홍보하고 유통사 및 의료진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로 활용
 - 전시 부스 운영 시에는 제품 시연 및 기기 사용 교육, 피부 상태 진단 체험, 임상 사례 기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신뢰 확보 필요
- 장비 렌탈 사업 모델 도입 검토
 - 스페인 피부과 의사들은 요일별로 병원을 순환 근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병원들은 고가 장비 구매보다 일/시간 단위 임대 방식을 선호
 - 렌탈 방식은 병원 측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비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모품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
- 검증된 현지 유통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업망 및 고객 접점 확보
 - 기존 시장 경험과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업체와 협력함으로써 영업 인프라 및 고객 접근성 확보, A/S 문제 해결 가능
 - 시장 초기 단계에는 샘플 장비 제공, 시연회 개최, 전시회 참가 등 유통사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주목할 만한 전시회〉

- 프랑스 국제미용성형학회(IMCAS World Congress)(타겟 시장 : 스페인 포함 유럽)
 - 일자 : 2026년 1월 29~31일
 - 장소 : Palais de Congres de Paris, 프랑스 파리
 - 분야 :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의료 분야의 최대 학술대회이자 전시회
- 스페인 미용의학학회(SEME Congress)(타겟 시장 : 스페인)
 - 일자 : 2026년 2월 12~14일
 - 장소 : Palacio de Ferias y Congresos, 스페인 말라가
 - 분야 : ladyd 의학 연구 발표 및 학술 교류, 교육, 의료미용기기 기술 논의, 네트워킹 등

전략 ③

(소비자) 적극적인 초기 마케팅 투자를 통한 시장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동향 등 최근 상황 요약)
 - (화장품) 복잡한 루틴보다 간소화된 스키니멀리즘 제품 선호 확대, 안티에이징 및 자외선 차단제품도 꾸준히 강세
 - (펫케어 용품) 전체 가구 52%가 반려동물 보유, IoT 기반 펫테크 및 원격 관리 기기 사용 확산
- (우리 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우수한 제품력 및 디자인, 윤리적 소비 대응력,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점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① 화장품

□ 현지 동향

-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 확산
 - 복잡한 루틴보다는 ‘적게 쓰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선호
 - 멀티 기능 제품, 간결한 성분 중심의 제품이 인기
- 홀리스틱(Holistic Beauty) 뷰티 및 심리적 웰빙 결합 트렌드
 - 외적 미용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스트레스 완화까지 고려한 제품 선호 증가
 - 아로마테라피 성분을 활용한 수면·명상용 스킨케어, 뉴로코스메틱(Neuro cosmetics)* 등 화장품을 자기치유와 정서적 만족으로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흐름 부상

* 뉴로코스메틱 : 일반 화장품을 넘어 뇌과학과 피부과학을 기반으로 피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장품
-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 트렌드 꾸준히 강화
 - △컨셔스 뷰티(Conscious Beauty)* △비건(Vegan) △클린(Clean) △오가닉(Organic)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 지속

* 컨셔스 뷰티 : 환경에 해로운 원료 배제, 공정한 생산 과정, 친환경 패키지 등 지구를 위한 긍정적 영향력까지 생각하는 의식있는 가치소비 트렌드

□ 유망품목

- 멀티 기능 화장품
 -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 탄력 증진, 콜라겐 합성 촉진, 항산화 효과 등 다기능을 가진 세럼이나 크림 등
 - (베이스 제품) 자외선 차단, 피부톤 보정, 기초 보습 기능 포함 다기능 BB/CC 크림 등
 - (All-in-One 제품) 립, 치크, 아이섀도우 메이크업까지 하나로 사용 가능한 멀티스틱 등

- 더모코스메틱(Dermo-cosmetic) 기능성 화장품
 - 피부과 전문지식 기반 제품이나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한 신뢰도 높은 제품 선호
 - 민감성(저자극, 무향료)·트러블 피부(여드름, 아토피) 대응 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유지
- 천연·유기농 스킨케어 제품
 - 클린뷰티 트렌드 확산으로 합성향, 파라벤 배제 유기농 인증 제품 선호
 - 한국 화장품 특유의 한방 허브 추출물, 밤효 성분도 자연주의 트렌드에 부합

□ 진출전략

- 제품 효능 입증을 통한 신뢰 확보
 - 스페인 소비자는 실제 효과 입증을 중시하며, 과학적 테스트 및 임상 데이터 기반의 제품을 선호
 - 피부과 테스트 완료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여부를 강조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초기 마케팅 시 SNS/인플루언서 등 바이럴 마케팅 채널 활용 가능
 -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등 시각 중심 플랫폼에서 제품 사용 전·후, 사용 후기 콘텐츠를 공유해 소비자에게 자연스러운 노출 유도
 -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스페인 현지뿐만 아니라 스페인어권 중남미 인플루언서 활용도 가능, 동일 언어권 특성을 고려한 확산 효과 기대
 - 바이어가 낮선 수출 기업·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SNS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시 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인지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가치소비 관련 인증 취득으로 지속가능성과 윤리성 강조
 - 친환경, 비건,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인증을 취득하여 제품 차별화와 신뢰도 제고 수단으로 활용

〈주목할 만한 전시회〉

- 이탈리아 볼로냐 Cosmoprof Worldwide Bolgna(타겟 시장 : 스페인 포함 유럽)
 - 일시 : (향수·화장품/포장재) 2026년 2월 12~14일 (헤어·네일·미용실) 3월 26~29일
 - 장소 : BolognaFiere, 이탈리아 볼로냐
 - 분야 : 화장품, 향수, 용기·포장재, 헤어, 네일, 스파, 미용실
 - 특기사항 : 스페인의 화장품 수입업체들이 대거 참가 또는 참관하는 전시회
- 스페인 Salón Look(타겟 시장 : 스페인)
 - 일시 : 2026년 10월경(미정)
 - 장소 : IFEMA, 스페인 마드리드
 - 분야 : 화장품 산업, 미용, 헤어 스타일링, 네일아트 등

② 펫케어 용품

□ 현지 동향

- 스페인 내 등록 반려동물 3천만 마리 이상
 - 스페인 전체 가구의 52%가 최소 1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려견(930만 마리), 반려묘(580만 마리)가 주요 비중을 차지, 그 외 관상어, 조류, 소형 포유류, 파충류 등 다양하게 분포(IPMark '25년 보고서)
 - 저출산 추세 속에서 반려동물이 자녀의 대안적 역할을 하며 시장 성장에 기여
-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 지출 확대
 - '24년 기준 반려견 월평균 지출액 159유로, 반려묘 144유로
 - * 연간 지출액 : (견) 1,908유로, (묘) 1,728유로(IPMart '25년 보고서)
 - 주요 지출 항목은 사료, 수의료 서비스, 보험, 미용관리, 위생용품, 장난감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출 품목 다변화
 - 스페인 가구의 8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반려동물의 인간화) 현상 뚜렷
- 펫테크(Pet Tech) 도입 확대
 - 스마트 기기·앱을 활용한 펫테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
 - * GPS 위치추적기, 자동 급식기, 원격 모니터링 카메라 등 웨어러블·IoT 기기 수요 증가
 - 화상상담을 통한 수의사 원격 진료와 사료·용품 정기배송 구독제 등 편리함을 더한 펫케어가 확산 중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반려동물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 뚜렷
 -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 유치원, 생일파티 등 감성 서비스 소비는 일반적이지 않음
 - '반려동물은 동물다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동물 본연의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

□ 유망 품목

- (펫테크 제품) 1인가구, 맞벌이 가정 증가로 스마트 펫기기 수요 확대
 - * 홈캠, 자동 급식기, 스마트 급수기, GPS 추적기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화 기능을 갖춘 원격 관리형 펫테크 기기
- (지능형 장난감 및 훈련용품) 놀이 중심에서 교육·훈련 중심으로 변화
 - * 퍼즐 피더(음식을 숨겨 두고 스스로 찾아 먹게 하는 장난감), 자동 공 던지기, 터그 장난감 등 신체·정신 자극을 유도하는 지능형 완구 수요 증가
- 펫 식품, 헬스케어(의약품) 및 위생·미용 제품 분야, 시장 포화 양상
 - 스페인 IBERzoo+ProPET '25 전시회 기준, 해당 분야는 글로벌 및 현지 브랜드 중심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한국 기업의 신규 진입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현장 평가

□ 진출전략

- 가격경쟁보다는 품질·안전성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 차별화
 -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실용성, 내구성, 사용 편의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시장 차별화 가능
- 지속가능성, 윤리소비 트렌드에 대응
 - 친환경, 비건, 무향, 저자극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주요 구매 요인으로 부상
 - 에코 포장재 사용, 플라스틱 절감, 재활용 가능 제품 등 가치소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트렌드 파악 및 유통채널 다각화
 - 스페인 및 타 유럽국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 트렌드 파악과 제품 홍보 병행 필요
 - 온·오프라인 연계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바이어 발굴을 통해 전문 유통망, 대형 마트, 동물병원 체인 등 다양한 유통 채널 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목할 만한 전시회〉

- 독일 국제반려동물용품전시회(INTERZOO '26)(타겟 시장 : 스페인 포함 유럽)
 - 일자 : 2026년 5월 12~15일(격년개최)
 - 장소 : 독일 뉘른베르크
 - 분야 : 반려동물 관련 제품, 최신 혁신제품, 교육 등
- 스페인 국제반려동물전시회(IBERzoo+proPET)(타겟 시장 : 스페인)
 - 일자 : 2026년 3월 11~13일
 - 장소 : IFEMA, 스페인 마드리드
 - 분야 : 반려동물용 식품, 액세서리, 미용, 건강, 복지, 교육 등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전력망 기자재

- | | |
|-------------|---|
| 선정사유 | • '25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력망 안정화와 계통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망 인프라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임 |
| 경쟁동향 | • GE, Siemens Energy, ABB, Schneider Electric 등 글로벌 기업이 핵심 장비를 주도하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 진출방안 | • 송전장비, 변전소 기자재, 전력 안정화 장비,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망 개선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지 에너지 기업에 납품 |

피부미용기기

- | | |
|-------------|--|
| 선정사유 | •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 확대, 인구 고령화, 미용의료 관광 활성화 등으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 확대
• 비침습·저자극 시술 선호가 늘어나며 레이저, IPL, 고주파 등 첨단 장비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 미국의 Alma Lasers, Cynosure와 유럽계 Lumenis, Candela 등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주도
• 이들 기업은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과 최신 레이저·에너지 기반 장비 라인업으로 현지 병원과 미용클리닉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음 |
| 진출방안 | • 스페인 미용의학협회(SEME)가 매년 2월 개최하는 미용의학학회에 참가해 현지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기기 시연 |

자가발전 기자재

- | | |
|-------------|--|
| 선정사유 | • 기업 및 가정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전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가발전설비 설치를 늘려 나가는 추세 |
| 경쟁동향 | • Iberdrola, Endesa 등 스페인의 대형 전력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가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시장을 주도
• 지역별로 중소 EPC 및 설치업체들이 가정·기업용 소규모 자가발전 설비 시장에서 활동 중 |
| 진출방안 | • 기술 경쟁력이 우수하고 현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효율 인버터, 에너지 관리용 전력 변환장치, ESS 등 첨단 기자재 납품을 추진
•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EPC, 유지보수(O&M), 온사이트 PPA 등 서비스형 모델과 결합해 시장 진출을 도모 |

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 화장품 시장은 웰빙과 자기관리 문화 확산, 고령화로 인한 안티에이징 수요 증가 등으로 꾸준히 성장 중• 한국 화장품이 우수한 혁신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 구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유럽·미국계 글로벌 브랜드가 높은 시장 점유율 구가• 한국 브랜드는 혁신성과 트렌디함을 바탕으로 인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 영향력은 대도시와 젊은 소비자층에 국한되는 편임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는 널리 쓰이지만 스페인 소비자에게는 생소한 원료를 활용해 효능을 강조한 화장품으로 제품 경쟁력 차별화• Cosmoprof, Salon Look 등 유럽·스페인 내 주요 뷰티 전시회에 참가해 유망 바이어 발굴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피부미용기기 렌탈

- 선정사유**
- 스페인의 미용 클리닉 중 상당수는 특정 미용기를 특정 요일에만 사용하므로, 고가의 미용기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방식을 선호
- 경쟁동향**
- 피부미용기기 유통 및 대여 기업들은 주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영업 활동 중
- 진출방안**
- 현지 미용클리닉을 대상으로 신속한 대여 업무와 A/S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기업과의 네트워킹

반려동물 DNA 검사 서비스

- 선정사유**
- 스페인은 유기견과 믹스견 비중이 높으며,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믹스견 입양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내 반려동물의 혈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소비자 수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혈통 확인, 성격 분석, 유전 질환 예측 등을 위한 DNA 검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
 - 스페인 도시별로 유기견 신원 확인과 거리 배변 단속 등을 위해 반려견 DNA 등록 의무화 사례 증가
- 경쟁동향**
- Laboklin, EasyDNA 등 다수의 유럽 및 미국계 유전자 검사 서비스 기업들이 온라인 기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 스페인 시장 내 활동 중
 - MyAdnLab 등 스페인 내수 기업들도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시작함
- 진출방안**
- 단순 품종 확인이나 유전 질환 리스크 분석을 넘어 영양·생활 습관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식품 추천 등 부가 가치를 더하여 제품 차별화
 - 소비자가 직접 샘플 채취 가능하므로 동물병원 의존도는 낮으나, 동물병원이나 전문 펫숍과 협력 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태양광 자가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 내 가정과 기업의 자가발전 인프라 설치가 늘어나면서 실시간으로 태양광 패널의 전력 생산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관심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lectra, Acisa 등 다양한 현지 에너지 IT 기업들이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지 자가발전 인프라 설치 기업에 공급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에서 활동 중인 에너지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가발전용 모니터링 솔루션을 현지 시장에 공급• 유럽 최대 전력 기자재 전시회인 Enlit Europe이나 마드리드 개최 Genera 등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스페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구축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스페인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잠재 파트너 발굴	【Mobile World Congress '26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규모) 모바일 분야 종소·중견·스타트업 약 30개사 (지원 내용) 한국관 운영, 1:1 상담회, 심층 보고서/ 세미나 등 	'26.3.2.(월)~5.(목)/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소비자 시장 신규 기회 포착	【화장품(소비자) 판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규모) 미정 (지원 내용)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연계 판촉 및 입점 지원 【Vitafoods Europe '26 한국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규모) 건강기능식품기업(국내 기업 수 미정) (지원 내용) 한국관 운영, 1:1 상담회 	연중 상시 '26.5.5.(화)~7.(목)/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스페인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 협력 수요 발굴	【전력기자재 맞춤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내용) 지사화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수요 맞춤형 시장개척 지원 	연중 상시
원전기자재 수출지원 특별사업	【원전기자재 수출지원 중점 무역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원전 관련 프로젝트 발굴, 현지 주요기업 기자재 소싱/협력 수요 발굴 등 	연중 상시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카스티야-레온(Castilla y León) 주 지방선거	3월	-
안달루시아(Andalucía) 주 지방선거	6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스페인 정부 국가예산안 편성·수립	(의회 제출) 10월 1일限 (의회 통과) 12월 31일限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관광 박람회 (FITUR)	1월 21 ~ 25일	세계 3대 국제 관광 박람회
스페인 말라가 미용의학학회 연례 학회 (SEME Congress)	2월 12~14일	스페인 최대 미용의학학회 연례 행사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3월 2~5일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
유럽 풍력에너지협회 연례 박람회 (WindEurope) * 유럽 순회형 전시회	4월 21~23일	유럽 최대 규모의 풍력 산업 전시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문 미용 전시회 (Professional Beauty)	4월 25~27일	스페인 주요 전문 미용 전시회
유럽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Vitafoods Europe) * 유럽 순회형 전시회	5월 5~7일	유럽 최대 건강기능식품 전문 전시회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유럽 배터리 기술 전시회 (Battery Tech Europe) * 유럽 순회형 전시회	9월 8~9일	유럽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마드리드 국제 뷔티 및 미용 전시회 (Salón Look)	10월 중	스페인 주요 전문 미용 전시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Smart City Expo)	11월 중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솔루션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공소연	차장	마드리드무역관	+34 916 85 92 84	serena@kotra.or.kr
2	이성학	과장	마드리드무역관	+34 916 85 92 85	spelee@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스페인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0-3 (95320)